



글로벌 투자전략-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대선 이후 봐야할 것

대선 개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가격 지표는 트럼프 당선을 거의 반영하는 중. S&P500 지수는 시간외에서 1.5% 상승 중, 5,864pt인 전고점을 다시 회복 트라이 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대비 +8.8%, 미국채 10년물은 13bp 상승하며 4.4% 상회. 종목 중에는 테슬라 등 친 트럼프 성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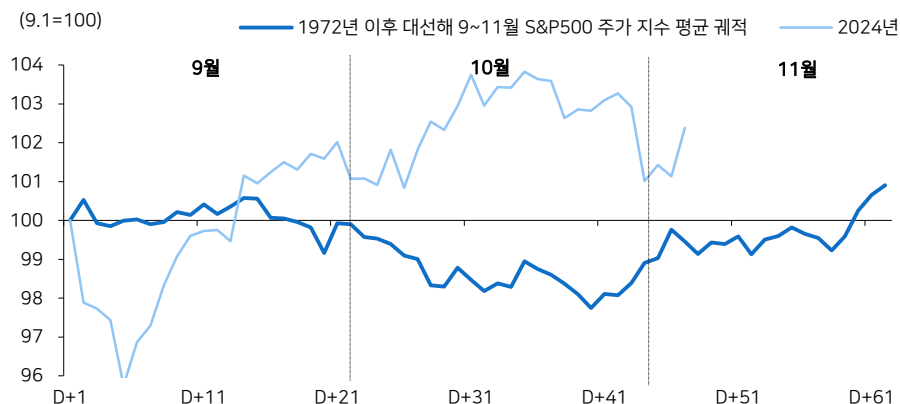
과거 대선은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선 직전 10월까지 미국 증시는 조정 국면을 지난 후 11월부터 불확실성 해소로 연말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것이 대선 해에 평균적으로 반복되던 패턴. 이번 국면의 경우 10월까지 미국 증시가 트럼프 당선을 프라이싱하면서 불확실성을 배제하며 오르다가 11월 대선 직전에 해리스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조정되었다가 다시 반등 중인 것으로 해석

대선은 미국 증시에 추세변수는 아님. 따라서 섹터 전략이 중요한데, 2016년 트럼프 당선 사례의 경우, 당해년도 연말까지는 에너지, 산업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시장을 아웃퍼폼. 1년 이후까지 수익률을 확장해서 보면 시장을 가장 크게 아웃퍼폼한 섹터는 금융(+39.7%), IT(+37.7%)였음. 동기간 S&P500 수익률은 23.9%

컨센서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친공화당 섹터 중 에너지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1년간 수익률이 가장 언더퍼폼(-0.1%)한 섹터였음. 따라서 에너지 섹터는 유가에 연동됨을 고려할 때 이전 자료들에서 언급하고 있듯 역발상 전략 고려.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금융, 방산, 산업재 등을 중심으로 아웃퍼폼. 신재생, 전기차 관련 업종은 언더퍼폼 이어질 가능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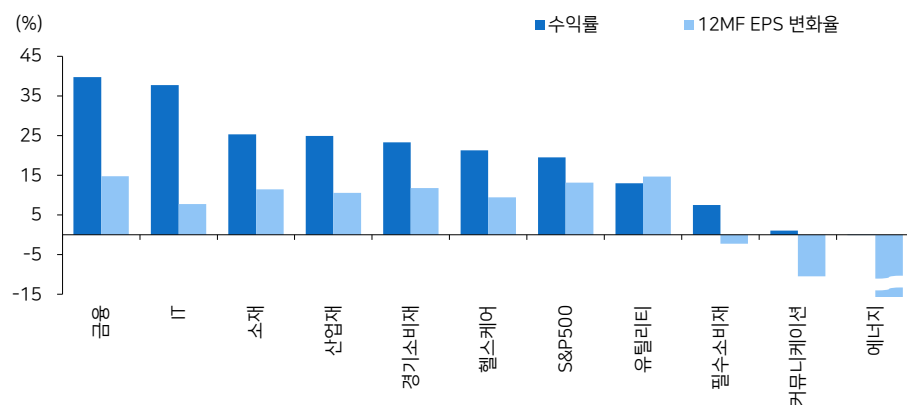
대선 이후 봐야할 변수는 11월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 실적발표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할 것. 그 다음 변수는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12월 20일까지 연장되어있는 임시예산안 관련 이슈가 바로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일정 체크 필요

그림1 S&P500 지수: 1972년 이후 대선 해의 9월~11월 평균 흐름 vs 올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16년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1년간 S&P500 업종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